

<좀보이걸>

1# 암흑-배경소개.

암흑속.

사막폭풍의 모래바람이 휘날리며 막을 올린다.

1000년 전, -#1

인류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인해 자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인간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좀비가 되었고,
인류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 #2

이 재앙을 막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은 1차 생명보호협회를 설립하여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지능을 탑재한 좀비 말살용 기계, Ava를 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들은 인간을 보호하는 임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지구는 오존층 파괴로 인해 극심한 사막화까지 겪게 된다.#3

1# 모래폭풍이는 부는 밤. 폐허

(카메라 줌인) 흐릿한 황사가 가득한 폐허의 도시 전경. #4

망가진 건물들과 사막화된 대지가 보인다.

방사능 폭풍이 서서히 사라지며 폐허의 도시를 덮고 있던 모래가 걷힌다. 그리고 소연의
형체가 보인다. #5

나레이션 소연, :

“여기는 이제 지옥이나 다름없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6

(소연이 가방에서 물과 스카프를 꺼내 쓰고,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폐허를 걷는다.

고철 더미와 쓰레기 사이를 누비며 약탈한 식량을 배낭에 넣는다.) #7

소연(속마음):

“기계와 좀비들... 둘 다 다를 게 없어. 부모님을 죽인 것도,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어떤 존재도 믿을 수 없어. 언제든지 등을 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 #8

(소연이 건물의 입구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핀다. 어두운 건물 안, 부서진 가구와 창문 너머로 밤 사능 오염된 하늘이 보인다.) #9

2# 폐허가 된 연구소 - 어두운 새벽밤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파괴된 기계 부품을 지나간다. #10

소연(속마음):

“꽤나 시간이 지나보이는 건물같은데..” (두리번) #11

(건넌 발을 멈추며)

소연:(스카프를 움켜쥔다.)“웃..냄새..”(짹그리며)

순간, 불안함을 느낀 소연이 어두운 전방을 가만히 쳐다본다.#12

적막도 잠시, 변이 좀비가 붉은눈동자를 빛내며 달려오기 시작한다.#13

크게 당황하며 뒷 발걸음질을 치다 부품에 발이 걸린 소연.#14

소연(속마음): “여기서 이렇게 죽는건가 ? ” (억울한듯한 표정) #15

(나레이션) 아직. 못만났는데.. #16

눈을 감고 뜨는 찰나였지만. 파노라마같은 장면이 지나간다. #17

핑크빛의 긴 머리칼이 지나쳐가는 듯, 피튀기는 장면. #18

부모님이 살해당했을때를 겹쳐 회상. #19

정신을 차린순간, 부모님이 죽어있던걸 보고만 있던 그때와 같은 구도로 루미는 소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20

3# 재회.

루미eva: “...여긴 위험해.” #21

(다가와 루미의 얼굴에 튼 피를 닦아준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루미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22

루미eva:“...” #23

(과거와 같은 차가운 표정을 짓지만 어딘가 따뜻한 손길로 소연의 뺨을 어루 만진다.)#24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듯, 화들짝 놀라 고개만 회피하는 소연, 몸이 굳어진 듯 하다.#25
그리고 그 순간은 분명.. 그리고 익숙한 저 머리색은..

소연: “..너.. 너..!”(분노로변하는 표정)#26

한순간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 난 듯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를 악 물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27

소연:(이를악물며) “너..너..”#28

소연:(손이바들거리며) “ 내 어머니를.. ”#29

루미는 묵묵히 소연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킨다.#30
그 순간의 싸늘한 공기가 소연을 더 자극한 듯 분위기가 고조 된다.

소연은 그순간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총을 손에 잡아든다. #31
루미는 가만히 소연을 지켜보며 눈을 피하지않고 있다.#32

소연:(총을 쥔 손이 떨리며)“내가 가소롭다는거야? 나도 여느 쓰레기같은 생명과
같다는거지?” #33

루미: “ 난 그렇게 생각한적 없어. ” #34

소연: (어이없는표정)“ 하, 기계주제에 감정가진 척 하지마. ” #35

(과거회상 흐릿한 장면이 지나침)#36
소연: “ 너 때문에.. 내 부모님이 죽었어. ”

(탕) #37

총을 순식간에 이마를 조준하며 쏘았다.

하지만 그녀의 핑크빛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고개만 돌려 쉽게 회피한 모습. #38
왼쪽뺨에 스친 듯 사람처럼 붉은피가 타고 흘러고 있었다. #39

소연은 체념과 공포를 지닌채 루미를 쳐다보고 있다. #40

루미: (무표정)“ 다 했어? ” #41

그순간, 루미가 소연에게 가깝이 붙으려한다. #42

(뒤로한걸음 기어가는 소연.) #43
소연:(공포에질리며)“가깝이 오지마!” #44

하지만 루미는 천천히 다가오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연다.

루미: “ 해칠생각 없어, 난 널 지켜야하거든. ” #45

소연은 경악한 듯 무슨소리냐는 표정을 짓는다. #46
그리고 다시 총을 쥐어 루미에게 쏘아버린다.

루미: “...” (총알을 쉽게 여러발 피한다.) #47

소연(나레이션):공격을 피하면서도 전혀 반격을하지않아,. #48

#4 모래폭풍속 갈등 - 새벽

잠시 압전의 배경. #49
숨찬 목소리와 반향한듯한 흔적으로

루미가 소연을 덮친듯한 자세로 엮혀있다.#50
소연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손을 뚫지껴 얹고. 긴머리카락을 늘어트리며 소연을
쳐다보는 루미. #51

그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는 루미가.
자신을 지켜야한다 말하는 부모를 죽인 기계가..
그저 원망섞인 눈물을흘리며 숨차게 쳐다보고 있다. #52

루미: “ 좀 진정했어? ” #53

여전히 차가운 무표정으로 질문했다.

소연: (체념한 듯)“.. 왜 날 지키려고 하는거지? 그때는 내 가족을.. ” #54

루미는 잠시 침묵한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55

루미: (살짝 쩡그리며) “그때의 난 너의 부모님을 지킬 수 없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마. 설명해줄테니...” #56

단호한 대답에 침묵하는 소연(혼란스러운눈빛). #57

루미: “ 난 정소연, 너를 지켜야만해. ” #58

소연(속마음): (놀란눈) 나를.. 어떻게 알고있는거지? #59

위잉-위잉-

혼란스러운 밤 그순간. 루미의 오른쪽 눈에 경고 시스템이 뜬다. #60

루미:(한쪽눈을 가리며)“웃..!” #61

푸른색 눈동자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62

그리고 붙잡은 한쪽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낀 소연. 아파한다. #63

소연: (쩡그리며) “ 아파..!” #64

아파하는 소연을 보며 당황하는 루미. 손에 애써 힘을 푸는모습. #65

루미:“...내가..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66

루미는 불안정한 붉은눈으로 소연에게 갈구한다.

루미:“나랑 한번만 자줘.” #67

검은 소연의 머리카락과 루미의 머리카락이 섞여들어간다. #68